



## 슈발리에, 그의 시대에..

**슈발리에 신부님의 삶** 1854년 12월 8일, 이슈뎅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쥘 슈발리에 신부는 동료인 모쥬네 신부와 함께 MSC라는 "작은 수도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슈발리에 신부의 사적 서한과 공식 서한에서 "작은 수도회"

표현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03년 4월에 쓴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그는 "선하신 주님께서서는 나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구처럼 기꺼이 사용하여 성심 선교사들의 작은 수도회를 설립하셨습니다..."라고 썼습니다. (TESTIMONY 16, From Father Charles Piperon, MSC, Issoudun, April 2nd, Easter Day 1899.)

**슈발리에 신부님의 말씀** "...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분 안에는 부드러움과 강함이 비할 데 없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그분이 취하시는 모든 발걸음에는 연민이 수반되며... 그분의 권능은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성심, 200). 슈발리에 신부님은 그의 수도자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덕목으로 사도직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양들은 쉬이 인도되고, 목자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목자를 알아보고 그를 따릅니다..." (M 1 525-526).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M 1 525). "나에게서 배워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슈발리에 신부님은 예수님의 이 초대에 진정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특히 자신을 의심하여 부르주 대주교에게 고발한 동료들에게도 용서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사랑했고,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을 부르주 대교구의 참사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From Fifteen Days of Prayer with Jules Chevalier, Fr. André MAYOR, MSC, Seventh Day).

## 오늘날을 위한 슈발리에...

"하느님의 방식은 특별히, 연민과 온유한 친밀함입니다. 이는 또한 사제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는 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엄밀히 친밀함, 연민, 온유함이라는 하느님의 방식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사제직의 기초 신학을 위하여" 심포지엄 연설,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우리는 온유함의 혁명을 위해 부름 받았습시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온유함은 친밀하고 구체적인 사랑이며, 마음에서 시작하여 눈, 귀, 손에 닿는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돌보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가장 작은 이들,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7년 4월 2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TED2017 콘퍼런스에서 이탈리아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 오늘 날을 위한 슈발리에 ...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쉽게 용서합니까? 아니면 특정 사람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험담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이들 안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폭로하려는 경향은 자존심이나 은밀한 질투, 상처받은 자기애, 잘못된 방식으로 위장한 적대감에서 비롯됩니다." (줄 슈발리에, M II, 98).

슈발리에 신부님은 하느님의 방식은 거리두기, 무관심, 단죄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말씀과 모범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슈발리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모, 사목자 또는 교사로서 여러분은 학교와 가정에서 "온유한 양육과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 이달의 기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구유에서 골고타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항상 모든 사람을 향한 당신의 온유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자질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 줄 슈발리에 신부님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성심의 선교사들인 우리가 성심의 풍요로움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 마음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돌로 된 우리의 마음을 살로 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처럼 우리도 "상처 입은 이 세상에 당신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